

시민행복과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지식 플랫폼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망하는  
전 지구적 담론

2021. 1.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망하는 전 지구적 담론

---

#### 책임편집

- 한상헌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공동편집

- 박해남 / 원광대학교 HK 연구교수
- 최길수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양승희, 양준석, 양성욱 /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최동식, 김혜영 / 대전세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도 일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 몇 개월만 참으면 잃었던 과거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이 완화되고 상황도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세계는 이 상황을 극복한 후의 사회를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라고 이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효험을 발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인류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과거의 생활방식이 가능해지면 팬데믹은 극복되는 것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숙고와 사색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인류에 대한 경고음이 질주를 멈추고 나니 조금씩 들립니다. 정상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은 고통 속에 발견한 희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은 전염병의 극복을 넘어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참된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염병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되는 사색과 반성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주장들이지만 이제야 새삼스레 관심을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늘 들어서 아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막상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정돈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이러한 이야기를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망하는 전 지구적 담론**”으로 정리했습니다. 늘 들어온 진부한 이야기들이 정리된 이 자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가치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대전세종연구원장 정재근 올림

1.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방 분권	01
1.1. 세계화의 향방	01
1.2.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07
1.3. 자치와 분권의 역할 증대	11
2. 일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	14
2.1. 산업과 노동의 전환	14
2.2. 불평등과 혐오	18
2.3. 연대와 공감	23
3. 환경과 생태의 전환적 패러다임	26
3.1. 기후 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	26
3.2. 생태적 전환	31
4. 도시의 미래	34
4.1. 도시의 성장과 변화	34
4.2. 지속가능한 도시	38
4.3. 포용적 도시	42
요약문	47
참고문헌(미주)	56





# 1.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방 분권

## 1.1. 세계화의 향방

###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전 세계적 확산

세계화(globalization)는 신자유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1960년대 서구 지식인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의 정부의 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전 수십 년간 서구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케인즈주의 및 복지 국가를 반대한다. 그 결과, 세금을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복지 관련 총액을 축소하고,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해고를 쉽게 하며, 다양한 비정규 및 시간제 고용 형태를 창출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경제와 복지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기업 영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또한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여 재화와 금융과 서비스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는 케인즈주의와 복지 국가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1930년대부터 제출되었으며, 2차대전 이후 Mont Pèlerin Society가 결성되면서 이에 관한 서구 지식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에서도 주도권을 쥐어

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등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에 몸을 담아 이른바 ‘시카고학파’로 불리는 지식인들이었다.<sup>1</sup>

이들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정책화되기 시작한다. 쿠데타로 집권한 피노체트의 칠레 정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정부와 제2기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가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세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고,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며,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북미(NAFTA)와 유럽(EU)에서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재화와 서비스와 물자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금융 및 개발 관련 국제기구들은 금융 보조를 대가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한국은 1993년 말 쌀시장 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참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등을 통하여 워싱턴컨센서스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대가로 시장의 개방, 고용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등 중요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 세계화 물결의 위기와 한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2008년 이후 변화를 맞게 된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서구 국가들의 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국가의 귀환(return of the state)’이라 불렀다.<sup>2</sup>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 금융 및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대신 산업 유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이 등장하였다. 이후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등장하였고, 국경을 넘어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또한, 복지국가로의 재전환이나 사회적 경제영역의 활성화 등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대안을 모색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하였고, 대중 사이에서는 내셔널리즘이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다시 한번 부상하게 되었다. 요컨대, 2008년 이후 세계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이 둔화되었는데, 이를 영국의 〈Economist〉지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라고 명명한 바 있다.<sup>3</sup>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2008년 이후의 ‘느린세계화’라는 국제정치경제 레짐을 이어받아 세계화 레짐을 폐기할 것인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연구진은 세계화 낙관론을 주장한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의 SARS를 포함, 1968년 홍콩독감, 1958년 아시아독감, 1918년 스페인독감 등 전 세계적 팬데믹이 경제 불황으

로 이어진 적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4</sup>

JP Morgan의 연구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경제가 장기침체인 "L" 형태나 오랜 침체기를 겪는 "U"형태가 아닌, 빠르게 원상으로 복귀하는 "V"형 경제 회복을 달성하리라 예측한다.<sup>5</sup>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팬데믹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세계화'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프린스턴대 및 경희대 석좌교수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는 팬데믹이 오히려 방역과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킴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세계화의 진전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한다.<sup>6</sup>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2008년 이후의 '느린세계화' 현상을 지속시키거나 세계화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 예측한다.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헨리 폴슨(Henry Paulson)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1920년대 말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하면서 베이징과 미국 사이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기술 민족주의가 가속화되고 세계화는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였다.<sup>7</sup>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중세 말 흑사병 이후의 사회 변화가 보여주는 보편주의의 몰락과 외국인 혐오증의 증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화를 약화시킬 것이라 예측하였다.<sup>8</sup>

다트머스대학의 경제학자 더글러스 어윈(Douglas Irwin)은 2008년 이후의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의 흐름을 더욱 뚜렷하

게 만들 것으로 예측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물품의 수출입금지 조치 등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탈하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보호주의 무역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sup>9</sup> 한국의 경제학자 홍기빈 역시 지난 수 십년 동안의 세계를 지탱해 왔던 세계화와 금융화가 종언을 고했다고 본다.<sup>10</sup>

##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또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화를 중단시키고 국민국가로 회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보고 생산과 소비가 수행되는 대신 몇 개의 단위로 글로벌 경제가 분할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을 부상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화의 결과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완전히 개별국가들의 경제민족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세계화와 국민국가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sup>11</sup>

McKinsey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점차로 줄이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멕시코나 터키 등 자신들의 권역 내 국가들을 활용하여 저가상품을 생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sup>12</sup> 이에 따

라 2013년 이후 지역 내 무역량이 글로벌 무역량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sup>13</sup>

또한 NAFTA를 대신하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USMCA,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0년 11월 15일 체결되었다.

옥스퍼드비즈니스그룹(OBG) 등 여러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지역주의(regionalism)의 부상을 기초로 글로벌 공급망을 대신하여 지역적(regional) 공급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세계화(globalisation)를 대신하여 지역화(regionalisation)가 가속화될 것이라 예측한다.<sup>14</sup>



## 1.2.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 미·중 패권 경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서방세계를 대표하는 패권국가로서 UN 등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경찰 노릇을 자처하였으며, IMF와 IBRD 등 국제적 금융기구들을 통하여 국제적 자본 질서도 규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미국이 주도하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에 맞서던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1990년을 전후하여 몰락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미국은 국제 지정학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글로벌 리더로 기능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이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이 누려오던 독점적 지위에 변화가 찾아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저가의 원료와 상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주요 소비처는 미국이었다. 하버드대학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2008년 시점에서 ‘차이메리카(Chimerica)’같은 표현을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결합 관계에 기초한 경제 활동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sup>15</sup> 미국과 중국은 1990년대부터 2010년 무렵까지 매우 중요한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양국관계는 경쟁으로 변화해 갔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근미래에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시화되면서 둘 사이에는 글로벌 리더십 혹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Made in China 2025”를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첨단기술산업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였으며,<sup>16</sup>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하여 글로벌 경제질서를 자신들의 손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sup>17</sup>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통해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지위 향상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 혼돈의 글로벌 리더십

그렇다면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경쟁 구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중국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 확산지역이었으나 봉쇄정책으로 대대적 확산을 막으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했다. 중국 정부는 주변 국가에 대한 의료물품 지원이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활용하고자



했다.<sup>18</sup>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sup>19</sup>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리더십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는 중국의 디지털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비판했고,<sup>20</sup> 서구의 중국 전문가 및 국제정치 전문가 100명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공포정치는 중국 시민과 세계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2020년 4월 17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sup>21</sup> 또한 서구 언론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의 ‘체르노빌 순간(Chernobyl moment)’이라 보면서,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sup>22</sup>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코로나 이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 확산되기 시작하자 주변 국가와의 상의 없이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2008년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G7나 G20 정상회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였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경기부양책 외에 국제원조에 관한 대응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백신 관련 특허와 노하우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제사회, 특히 제3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WHO를 탈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리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sup>23</sup>

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의 위치를 공고히 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지정학적 구도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이후의 질서(Post-America Order)’ 혹은 글로벌리더십의 공백을 표현하는 ‘G-Zero’로 표현되는 새로운 질서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스웨덴의 전 외무장관 칼 빌트(Carl Bildt)는 2020년 4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 이후의 세계(post-American world)의 첫 번째 위기다. UN 안보리는 어디



론가 사라져버렸고, G20은 사우디 왕세자의 손에 있으며, 백악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치고 있다. 모두가 고립되어 있으며 바이러스만 세계화되었다.”<sup>25</sup>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다수의 국가들이 WHO의 지침을 어기고 국경폐쇄를 단행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의 이안 브레머(Ian Bremmer)가 말한 G-Zero 시대의 적나라한 사례로서, 어떤 국가나 기구도 지정학적 차원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지니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sup>26</sup>

## 1.3. 자치와 분권의 역할 증대

### 코로나19의 발생과 정부 간 역할 분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펼친 중앙정부, 그리고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고 현장 상황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세계적 모범이 되는 K-방역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살피면서 방역의 사각지대까지도 아울러야 하는 과제를 도맡게 되었고,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도 중앙정부에 앞서 빠르게 대응하였다.<sup>27</sup>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향후 감염병과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수직적인 통제와 관리의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적 역할분담,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sup>28</sup>

### 커지는 지방정부의 역할<sup>29</sup>

현재 한국의 재난대응 추진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중앙정부는 광범위한 재난·안전 전략과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대응·복구 등 실질적 현장 업무를 수

행하는 구조로 구분된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과 복구가 전개되는 곳은 지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감염병 재난 대응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새로이 출현한 감염병에 대한 방역 대응은 초기에 신속하게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심환자와 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학 조사와 접촉자 파악, 현장 방역 조치, 환자 이송, 확진자 주시 등 직접적인 방역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병상·격리시설의 관리와 추가 확보, 방역 업무의 거점으로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인력 보강, 지역민 대상 교육과 홍보 등 방역 인프라 구축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방역과 방역 인프라 체계의 운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대응 주체들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을 높여야 한다.

## 지방정부 역할 제고를 위한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

코로나19와 같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미치면서 현상성이 강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입국자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현장과 가까운 공공기관, 즉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대응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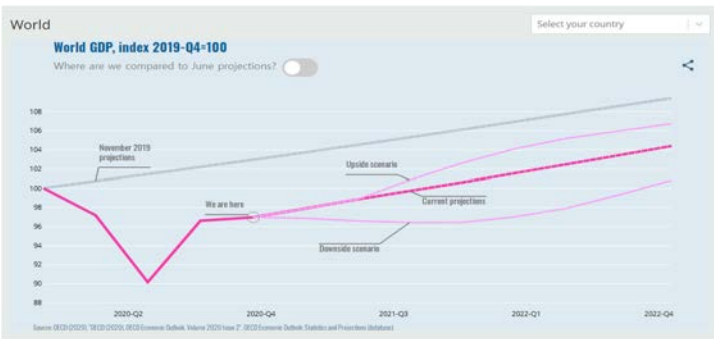
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 곧 자치분권이며,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도 자치분권이 지닌 힘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촉진되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자치의 책임감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방정부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 2. 일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

### 2.1. 산업과 노동의 전환

#### 코로나19 충격

코로나바이러스는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의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와 비교해볼 때 2020년 상반기에는 대대적인 경제 침체가 존재했고, 2020년 중반 이후 반등은 있었지만, 2020년 4분기 들어서도 2019년 4분기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그림 참조)



자료: [www.oecd.org/economic-outlook](http://www.oecd.org/economic-outlook)

#### 2020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과 현실

특히 대면접촉이 필요한 산업의 피해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경제학자 장하준은 관광과 여행업, 서비스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이 코

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기계화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낮을 것이라 분석했다.<sup>30</sup>

##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경험은 산업의 구조를 재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디지털화다.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언택트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이는 결국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가 예측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sup>31</sup> 〈맥킨지(McKinsey)〉 보고서 역시 2020년 3월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은행, 판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접목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32</sup>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의료,

통신,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화를 부추길 것이라 보고 있다.<sup>33</sup> <노동의 종말>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원인을 기후 변화로 특정하면서 화석연료가 없는 문명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했던 기존의 산업 구조를 대신하여 정보기술과 지역적 생산에 의존하는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4</sup>

## 노동의 변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노동의 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일하는 방식(Workstyle), 노동자(Worker), 노동장소(Workplace) 모두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팀 업무에서 개인화된 직무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단순 사무 업무에 종사하던 화이트칼라노동자가 몰락하고 창조성과 전문성을 지닌 소수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며,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의 분리가 재구성되어 근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sup>35</sup>

산업에의 디지털 기술 적용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Automation)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장 극심하던 때에 약 4천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다시 복구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의 저자 다니엘



서스킨드(Daniel Susskind)는 로봇의 도입으로 5년 안에 최소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36</sup>

하지만 산업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자동화가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영역의 핵심노동력만을 남겨두고 다른 일자리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필수노동자들의 역할을 재발견하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미래학자인 제이슨 쉥커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노동은 필수노동(essential work)과 지식노동, 그 외 노동으로 크게 나뉠 것으로 본다. 그는 필수노동을 의료, 공공서비스, 제조업, 농업, 유통 등 사회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영역을 일컫는다. 그는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필수노동자들 중 다수는 일자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많아질 것으로 예측한다.<sup>37</sup> 장하준은 그러한 가운데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s)에 대한 재발견과 더불어 경제의 재구축이 이뤄져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그에게 필수노동자들이란 배달, 택배, 의료, 보육, 요양, 소매업 종사자 등 사회의 안전과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내지 준공공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복지, 안전, 건강, 공공성을 축으로 한 경제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것이다.<sup>38</sup>



## 2.2. 불평등과 혐오

### 워킹푸어의 등장과 불평등의 심화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하나의 현상은 워킹푸어(working poor)라는 개념의 등장이다. 1930년대 등장하여 1945년 이후 서구 자본주의국가에서 통용되었던 케인즈주의와 복지 국가 시스템이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신자유주의 이후 낮은 소득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을 지닌 일자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생산의 제3세계 이전은 서구 중산층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그 결과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가 대거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진전은 서구의 국내 차원 및 글로벌 차원 모두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서구의 국내 차원에서는 중산층이 감소하고 워킹푸어라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산층 사회가 종언을 고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서구에 있던 생산시설이 이전한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이 올랐지만, 2018년의 세계불평등보고서(World Inequality Reprot)는 전세계 상위 1%의 소득증가에 비하면 아시아의 소득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39</sup> 금융자본주의와 디지털자본주의로의 전환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빅테크(Big Tech) 기업들 -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

로소프트 - 은 제조업 분야와 같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 워킹푸어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는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은 이 현상의 심각성을 알린 책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불평등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 이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불평등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며, 두 번째로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글로벌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인종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인종 간 불평등이 감염과 사망률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아프리카 출신 흑인의 사망률은 연령을 기초로 추정된 예상 사망률보다 3.7배 높고, 파키스탄인은 2.9 배 높으며, 카리브해 출신 흑인은 1.8 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40</sup> 미국에서도 흑인은 더



낮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살 확률이 백인보다 두 배 높고, 흑인 노동자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의 비율은 백인의 그것보다 10% 낮으며,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일자리에 일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기저질환자의 비율도 높다.<sup>41</sup>

유엔개발계획(UNDP)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은 1인당 GDP의 약 4%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4천만에서 6천만 정도를 빈곤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전 세계 노동자의 최대 절반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2억 6천 5백만의 인구가 기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말한다.

감염과 치료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대응능력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경우 1만 명당 병상이 55개, 의사가 30명 이상, 간호사가 81명인데 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상이 7개, 의사가 2.5명, 간호사가 6명이었다. 전 세계 85%의 인구가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된다.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56%는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 71%에 가까운 이들이 비공식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코로나는 이 지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성의 일자리보다 여성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하고, 봉쇄와 거리두기로 인해 가사와 양육의 부담이 증가하며,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더 커진 상태다.<sup>42</sup>

영국의 지식인 케이트 피켓(Kate Pickett)은 불평등이 현대사회의 매우 심각한 기저질환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사고와 경험,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음의 방식도 바꾸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한 사람들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sup>43</sup>

## 코로나19가 불러온 혐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 혐오와 인종주의로도 이어졌다.’ 팬데믹의 시작이 중국이었다는 이유로 미국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폭력과 증오 범죄가 증가했음이 보고되고 있다. 3월 중순까지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사례만 해도 미국 46개 주에서 1800건에 이르렀다.<sup>44</sup> 영국에서는 아시아 출신 의사나 간호사로부터의 치료를 거부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sup>45</sup> 중국에서는 흑인 이민노동자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 거주지에서의 강제 퇴거, 임의 격리, 대량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대상이 되었다.<sup>46</sup>

2020년 5월 8일 UN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팬데믹이 계속해서 증오와 외국인 혐오의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희생자를 만들고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sup>47</sup> 혐오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2020년 2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스호는 일본 요코하마항 입항이 거부되어 바다에 고립된 상태에서 감염자의 확산을 경험해야 했다. 워

스테르담호는 하선을 계속 해서 거부당하며 아시아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MSC 메라빌리아호는 승무원이 독감 증세를 보이자 하선을 거부당하고 카리브해를 떠



돌아다녔다.<sup>48</sup> 한국의 사회학자 최종렬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중국인 입국 금지, 신천지 교인, 대구시민, 노인, 성소수자 등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이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49</sup>

## 2.3. 연대와 공감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과 혐오의 확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많은 지식인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것은 연대(solidarity)였다.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연대입니다. 연대가 있어야 COVID19를 물리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sup>50</sup>

이스라엘의 지식인 유발 하라리는 2020년 3월 20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앞에서 세계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세계적 연대 사이의 기로에 섰다고 말한다. 이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특정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많은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국들로부터의 항로를 차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전염병과 경제위기는 모두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글로벌 연대론은 각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장비가 더 공정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황이 나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돕고, 의료진을 서로 파견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구성하고, 출입국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것 등을 포괄한다.<sup>51</sup>

## 이타주의와 공감

프랑스의 지식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이타주의와 공감(empathy)을 대안적 사고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 내세운다. 그가 보기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서구 사회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기초로 상정해왔던 권리를 지닌 개인들이라는 기본 가정의 토대를 의문에 부치고 있다. 그렇다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위로부터 자원을 재분배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체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대안적 질서를 창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사상적 위기의 대안으로 그가 내세운 것은 이타주의와 공감이다. 건강, 음식, 교육, 환경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갖게 되는 공감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핵심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2</sup>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역량의 개발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불평등 및 혐오의 대안으로 내세운다. 평균수



명, 건강 보호, 자유로운 이동, 자존심을 지키며 타인과 교제 등을 가능케 할 조건을 모두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3</sup>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장하준은 공통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재편과 교육제도의 공정성 확보 등을 기반으로 삼아, 괜찮은 삶(wellbeing)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육아, 교육, 의료, 돌봄, 주거)을 사회가 공동으로 구매하여 공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sup>54</sup>

## 지구적 거버넌스

옥스퍼드의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청한다. 지구 차원에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가 필요하며, 각 사회가 지닌 거버넌스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sup>55</sup>



## 3. 환경과 생태의 전환적 패러다임

### 3.1. 기후 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

#### 21세기 최고의 당면 과제인 ‘기후 변화’

1972년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포함 기후 변화가 생태의 위기와 인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출현한 이후, 기후 변화(Climate Crisis)는 인류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포함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하였다.

이는 1997년의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견이 노출되었고,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모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문제는 2010년대 이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 지구시스템에 근본적 영향을 끼치는 ‘인류세’

199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첸(Paul Crutzen)은 2000년에 현생의 인류가 사는 지질시대를 ‘신생대 제4기 홀로세

(Holocene)’가 아닌 ‘신생대 제5기 인류세(Anthropocene)’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인류를 뜻하는 ‘anthropos’와 시대를 뜻하는 ‘cene’의 합성어로, 인류가 자연을 변형시킴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지질시대임을 뜻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질소, 플라스틱, 탄소 등은 북극의 지형을 바꾸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며, 새로운 지층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이 개념은 2008년 런던지질학회가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9년부터 ‘인류세 워킹그룹(The Anthropocene Working Group)’을 만들고, 인류에 의한 지질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인류세의 시작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홀로세와 다른 인류세가 분명 존재한다는 의견과 2020년 5월 핵실험 이후인 1950년 무렵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sup>56</sup> 이러한 활동 가운데 인류세는 2010년대 들어 자연과학만 아니라 학계 전반에 알려진 개념이 되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지구 시스템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포스트 휴먼’ 시대의 도래

많은 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포스트 휴먼의 시대로 본다. AI의 발달 속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점차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개념은 인간 자연, 사회와 자연 사이의 오래된 구분의 도식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노 라투르는 인간은 늘 자연 등 비인간 행위자와 소통하고 역이어 왔던 존재임을 강조하며, 사회와 자연의 이분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sup>57</sup>

미국의 여성학자 캐런 배러드(Karen Barad)는 ‘포스트 휴먼’을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자,<sup>58</sup> 비인간 존재에게 “세계의 생성에 참가할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59</sup> 달리 말해, 이는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가정해왔던 인간 중심적 사고(휴머니즘)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자연의 반응을 계속해서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세’의 질병

몇몇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세 시대의 질병’이라고 본다. 1980년대부터 대유행한 HIV/AIDS부터 시작하여,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 현재까지 인류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들의 다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 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sup>60</sup>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애런 번스타인(Aaron Bernstein)은

이러한 전염병들은 인간이 동물들의 서식지와 생태계 파괴 및 동물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전염병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sup>61</sup> 20세기 이후 인간 활동의 가속화는 세계열대 우림의 절반을 농지와 인간의 정착지로 바꾸었다. 이런 가운데 생겨난 신종전염병 중 1/3은 과거 사람들이 접한바 없는 동물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으로 보고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중국의 생태계 파괴 및 동물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2</sup>

## 기후 변화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양면적 영향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일시적으로 인간들의 활동을 멈추게 하였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이 감소하고 기후 변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등장하였다. 하지만 국제기상기구(WMO)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2020년 초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하지만 2020년 여름이 되며 전년도 감소량은 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는 온실가스 농도와 온난화라는 흐름을 뒤집기에는 한참 모자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63</sup>

컬럼비아대학 지구연구소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기후 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자전거타기와 걷기의 비중을 늘리며, 해외여행을 줄이고,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등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하지만 기후협정 실



천의 중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회의의 중지, 아마존 삼림 벌채의 재개, 각국 기후정책의 약화, 재생에너지 사용 저하, 환경 관련 연구의 중단, 장갑과 마스크 등 플라스틱 폐기물과 자동차 사용의 증가 등 기후 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 역시 상당하다고 주장한다.<sup>64</sup>

## 3.2. 생태적 전환

### 코로나 팬데믹은 현재의 시스템을 전환하는 계기

이에 따라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생태학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하나의 기회로 여긴다. 매우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기후 변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계기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5</sup> 그리고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의 활동에 대한 반성적 모멘텀을 만들기 위하여 그는 어떤 활동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12개국 언어로 실시하고 있다.<sup>66</sup> 그에게 있어 중지되고 바뀌어야 할 것은 정치보다는 현재의 생산 시스템이었다.<sup>67</sup> 클린턴 행정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하버드대학 JFK행정대학원의 제프리 프랑켈(Jeffrey Frankel)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재정 부양책에 있어 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정가에서 주장되고 있는 그린뉴딜과 탄소세 등도 중요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sup>68</sup> UN환경계획(UNEP)은 강력한 기후 행동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을 주장하고 있으며,<sup>69</su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역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sup>70</sup>

## 팬데믹 방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전문가들은 인간이 수행한 생태계의 교란을 막아내고 되돌리는 것이 지속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팬데믹을 방지하는 길이라 말한다. 한국의 생물학자 최재천은 3~5년 주기로 반복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생태백신(eco-vaccine)’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자연환경의 변형을 중지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71</sup>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의 애런 번스타인(Aaron Bernstein)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의 주기적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삼림 벌채를 방지하여 인간과 동물의 접촉을 줄이고, 농업 관행을 바꾸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sup>72</sup>

##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공존

한국의 사회학자 김홍중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자연과 생태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바이러스를 더 이상 물질로서만 아니라 행위능력을 지닌 존재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라투르를 인용하여 사회를 인간들끼리 만든 무언가가 아닌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 낸 무언가로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다른 개인을 자신과 공존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만큼이나 자연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sup>73</sup>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리를 ‘사회계약’이라고 말한 것을 활용하여 그는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공존을 ‘자연계약’이라고 명명한다.<sup>74</sup>

## 상호성에 대한 감각에서 출발하는 순환 경제

인도 출신의 지식인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는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극대화해온 세계화 시스템을 대신하여 지역 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이윤을 위해 만들어진 공장식 식량 산업을 대신하는 농업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이를 그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라 부른다. 이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에고, ego) 대신 자연 및 생태(에코, eco)를 중시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성에 대한 감각에서 출발하는 시스템이다.<sup>75</sup>



## 4. 도시의 미래

### 4.1. 도시의 성장과 변화

#### 세계화 시대, 글로벌 도시로 전환과 기능의 양극화

세계화 시대에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 이에 관한 가장 유명한 개념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사회학자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의 ‘글로벌 도시(global city)’다. 그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기술, 서비스 등의 기능이 도시 중심부에 다시금 자리 잡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활용하였다. 세계화는 금융, 기술, 서비스 기능의 ‘초집중’과 정보 기반시설의 발전이 이뤄진 ‘핵심적 공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즈니스, 생산, 광고, 마케팅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활동간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이뤄지는 경제 행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센은 뉴욕, 런던, 도쿄가 글로벌 도시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들 도시는 오랫동안 국제적 무역의 중심지였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를 감독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통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도시가 된다. 글로벌 도시는 금융과 서비스 산업의 핵심 장소가 되고, IT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들 도시에는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원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과 기업 엘리트들의 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래

서 글로벌 도시의 중심가는 초국적 기업, 금융, 서비스, 기술 등이 긴밀하게 얽히면서 모여 있는 클러스터를 이룬다. 이외에도 기업 엘리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는 가사도우미, 등하교 도우미 등 저임금 일자리도 있어 글로벌 도시는 내부에 계층적 양극화의 경향도 지닌다.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글로벌 도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바이러스로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계화 변화는 글로벌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 영국 런던센터(Centre for London)의 잭 브라운(Jack Brown)은 낙관론을 펼친다. 그는 2010년대 이후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세계도시에도 문화적인 위기가 찾아왔지만, 시스템의 측면에서 세계도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 기초하여 많은 글로벌 도시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상품들이 모이고,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런던에 남아 필수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런던의 경우 전염병, 화재, 폭력, 탈산업화 등 지속적인 재난을 경험하면서도 글로벌 도시의 지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글로벌 도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sup>76</sup>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글로벌 도시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여전히 사람들은 사무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무 공간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교육, 학습, 개발, 창의성, 협업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재택근무에 맞춰 작업공간을 지닌 주거공간이 증가할 것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사무 공간과 주거 및 레저 공간을 재구성하겠지만, 세계 도시의 매력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입각한 주장이다.<sup>77</sup>

## 글로벌 도시의 변화: 근린과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사스키아 사센은 글로벌 도시에 일정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화가 보여준 한계와 기후 변화는 도시 생활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대도시 그 자체의 유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대규모 통근의 문제, 식량의 공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오히려 근린과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재발견되는 계기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그는 설명한다.<sup>78</sup>

캐나다 요크대학의 로저 케일(Roger Keil)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전염이 글로벌 도시의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한의 외곽에 있는 시장에서 확산되



기 시작하였으며, 밀라노나 뮌헨 같은 대도시의 주변부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전파되는 모습을 보였다.<sup>79</sup>

뉴욕대학의 빅터 로드윈(Victor G. Rodwin)과 럿거스대학의 마이클 구스마노(Michael Gusmano) 역시 글로벌 도시들은 해당 국가의 평균 사망률 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말한다. 높은 인구 밀도와 빈번한 이동과 접촉, 그리고 도시 내 양극화 경향으로 인한 빈곤층의 존재가 글로벌 도시들로 하여금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sup>80</sup>

## 4.2. 지속가능한 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더불어 도시, 특히 대도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응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로의 전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55%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향후 2050년경에는 약 70%의 인구가 도시에 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95%가 도시에서 발견되고 있어 대都市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sup>81</sup> 또한 불평등 문제와도 매우 긴밀하게 결부된 것이기도 해서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전염병 대처와 불평등 측면에서도 도시는 다방 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가 현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낙관하기도 하였다.<sup>82</sup>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기존 도시계획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적용할 필요성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sup>83</sup>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아이디어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5가지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공공시설 디자인과 시설 분포 재구성으로 자전거 통행자와 보행자 수 늘리기
- 용적률을 적절히 조정하여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조정하기
- 빈민가 및 비공식 경제 부문 종사자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하기
- 철거나 강제 이주의 위험이 없도록 관련 대상자를 위한 토지 제공하기
-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sup>B4</sup>

도시정책 전문가 집단인 시티즈토티브(CitiesToBe)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같이 제안하고 있다.

- 단일위험요인 분석이 아닌 다중위험평가 분석을 위한 데이터플랫폼과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활용한 거시 목표 설정(11번째 목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한 인프라 구축
- 탈세계화, 자급자족, 순환 경제 육성

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WBCSD)는 앞으로의 도시가 다음의 요소들을 매우 중요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자연재광과 환기, 독성물질 감소, 옥상테라스, 운동 및 휴식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건축물
- 고밀도를 유지하면서 가까운 곳에 병원과 의료서비스, 도서관과 공원을 지닌 도시
- 개방형 도로체계를 통해 가변적인 인도/자전거도로/차도 변경
- 통근시간 단축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 및 대기 질 향상
- 모듈식 건축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향상
- 경제회복 계획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15분 도시’ 개념을 제안하였다. ‘15분 도시’는 도시 기능을 분산하여 상점, 스포츠, 레저, 공원 등의 시설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로, 이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염병에 대해서도 더 나은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85</sup> 또한 세계 96개 주요 도시 시장협의체인 C40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계획으로 <친환경적이고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C40 시장 아젠다>를 발표(2020. 7)했다. 이는 녹색일자리 창출, 필수노동자 지원, 포용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 양



질의 대중교통 시스템, 저렴하고 건강한 주택과 도시 인프라, 15분 도시 조성,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확장, 공원과 자연환경을 통한 건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sup>86</sup>



## 4.3. 포용적 도시

### 포용적 도시 구현 필요성: 코로나 팬데믹과 도시 불평등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도시 불평등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뉴욕시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진원지였을 때 맨해튼 내 감염률은 인구 천 명당 9.25명인데 비해 퀸즈 내 감염률은 천 명당 41.25명의 감염률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뉴욕시의 다수 부유층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하듯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도시의 물리적인 밀도 보다는 도시 내 불평등(혹은 격차)에서 큰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포용적 도시의 가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가와 도시, 도시간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악화와 앞으로 도시 생활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는 전염병으로 인한 인적·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전염병은 많은 주요 도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를 이끄는 일부 산업은 놀랍도록 탄력적이

었다. 예로 2020년 3분기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은 32.9%가 감소하였으나, 아마존 분기 수익은 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동안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sup>87</sup>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도시 내 불평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도시의 모습을 ‘포용적(inclusive) 도시’로 제안하고 있다.

## 포용적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안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2020년 7월 “도시 세계에서의 COVID19”라는 제목의 정책 발표를 통해 연대를 가장 중요한 회복의 덕목으로 삼았으며,<sup>88</sup> UN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불평등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한 세분화된 데이터 활용
- 저렴한 주택과 빈민가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안전성 확보
-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평한 접근
- 의료용품 등에 대한 공평한 지원
- 지역사회의 참여
- 다양성의 수용과 사회적 결속력의 강화<sup>89</sup>

세계은행(World Bank)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보다 포용적인 도시를 만드는 계기로 바라보고 있다. 원격 업무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는 양질의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범죄를 해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병자를 돌보는 등의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 필수노동자들은 적지 않은 수가 저렴한 주택과 대중교통, 공공 교육기관, 공공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 공공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저렴한 주택 등을 제대로 공급할 때 도시는 지속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sup>90</sup>

MMC(Mayors Migration Council)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및 복구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것”을 회복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포용적 접근을 통해 의료 및 경제 재화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 이민노동력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지위 향상,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등을 코로나 회복 조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sup>91</sup>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의 포용적 성장과 회복을 염두에 두고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엘파소, 휴스턴, 루이빌, 뉴욕, 노포크, 오클랜드 등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록펠러재단은 이들 지역에서 경제 문제로 인한 퇴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체의 유색 인종 근로자가 금융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종차별

과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하듯 도시 내 불평등을 완화하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구현하는 것,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도시의 가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 1. 국제 정치와 경제 전망



## 1.1 세계화(globalisation)의 향방

### 신자유주의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전 세계적 확산

-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과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 세금 삭감, 복지 축소, 고용 유연화, 기업 규제 철폐, 공공부문 민영화  
⇒ NAFTA, EU 등 지역 경제공동체 형성, IMF 등 국제기구 역할 강화
- 한국 : 1993년 쌀시장 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참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1997년 IMF 자금 지원으로 시장 개방, 고용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가속

### 세계화의 위기와 지역화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과 **국가의 귀환(return of the state)** 현상 발현
- 2020년 : NAFTA를 대신하는 USMCA, 한·중·일과 ASEAN 10개국 등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



-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 전 세계의 단일시장 생산·소비가 무너지고, 대신 지역적 공급망이 중요해짐. 몇 개의 단위로 글로벌 경제가 분할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이 가속화될 것

## 1.2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 2010년대 이후 미·중 패권 경쟁 격화

- 중국은 'Made in China 2025', '일대일로이니셔티브(BRI)',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노리고,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축 이동'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으로 노골적 견제

### 혼돈의 글로벌 리더십

-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 부재가 드러나
-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 이후의 질서(Post-America Order)**, 글로벌리더십의 공백을 뜻하는 **G-Zero**의 새로운 질서 예상

## 1.3 자치와 분권의 역할 증대

### 커지는 지방정부의 역할

- 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며, 이를 위한 요건은 자치분권의 가치 확대

## 2.

# 일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



### 2.1 산업과 노동의 전환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언택트 서비스의 확장으로 산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플랫폼 업체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판매, 서비스업 등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

#### 노동의 변화

- 노동방식(Workstyle), 노동자(Worker), 노동장소(Workplace)  
: 전통적 팀 업무에서 개인화된 직무로, 화이트칼라의 몰락과 창조성·전문성을 지닌 소수 노동자의 중시,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의 공간적 재편
- 자동화(Automation)와 팬데믹으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지만, 의료, 공공서비스 등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s)는 역할이 재발견되고 일자리도 증가 전망. 노동은 필수노동, 지식노동, 그 외 노동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측

## 2.2 불평등과 혐오의 대안은 연대와 공감

###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평등과 혐오

-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며, 불평등을 넘어 혐오와 인종주의까지 영향. 전 세계적으로 인종주의적 폭력과 증오 범죄가 증가. 우리나라에서도 팬데믹 이후 중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 증가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

- 코로나 팬데믹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기초로 상정해왔던 ‘개인의 권리’라는 토대에 균열을 가함. 그렇다고 권위주의적 통제 체제도 대안이 될 수는 없음  
⇒ 타자와의 이타주의와 공감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자끄 아탈리)
-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이므로 의료 지원, 경제 회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통해야 해결이 가능
- 복지제도 재편과 공평한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팬찮은 삶 (wellbeing)**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회가 공동구매해 공정 분배하는 시스템 필요(장하준)

### 3. 환경과 생태의 전환적 패러다임



#### 3.1 기후변화와 코로나바이러스

##### ‘기후 변화(Climate Crisis)’와 ‘인류세(Anthropocene)’

- 기후 변화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1992년 리우선언과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등 국제 협력 과정이 이어짐.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미국의 비협조로 난항
- 인류가 창조한 플라스틱 등이 북극의 지형 변화, 해수면 상승, 새로운 지층 형성 등을 초래하여 지구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화 ⇒ 현생 인류가 사는 지질시대는 **신생대 제5기 인류세**로 명명할 수 있어(폴 크루첸)

##### ‘인류세’가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HIV,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 전염병의 다수는 인간의 동물 서식지·생태계 파괴와 관련이 크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도 사태를 악화
- 코로나 팬데믹은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을 낮춰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온난화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

부족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기후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음(국제기상기구(WMO))

- 코로나 팬데믹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지만, 방역폐기물 증가, 기후협정과 기후정책 약화, 재생에너지 사용 저하와 같은 부정적 영향도 상당

## 3.2 생태적 전환

### 팬데믹 방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 반복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으로, 경제 활동을 위한 자연환경 변형을 중지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생태백신(ecovaccine)** 제안(최재천)

### 코로나 팬데믹은 현재의 시스템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 상호성의 감각에서 출발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 공장식 식량산업과 세계화 시스템의 대안은 농업과 지역경제 시스템(반다나 시바)
- UN환경계획(UNEP)은 그린 뉴딜과 탄소세 등 강력한 기후행동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의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촉구

## 4. 도시의 미래



### 4.1 도시의 성장과 변화

#### 세계화 시대, 글로벌도시로 전환과 기능의 양극화 초래

- 세계화는 금융, 기술, 서비스의 **초집중**과 정보 기반시설의 **핵심적 공간**에 의존 ⇒ **글로벌 도시(global city)**: 금융과 서비스 산업의 핵심 장소,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으로 기능, 도시 내부는 **계층적 양극화**

#### 코로나 팬데믹이 글로벌 도시에 미치는 영향

- 역설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근린과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재발견되는 계기가 되어 글로벌 도시도 변화가 전망됨

### 4.2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대도시: 기후변화와 전염병 대처, 불평등 측면에서 기존의 도시는 지속가능성의 시험대에 올라있으며, 도시계획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짐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아이디어

- 15분 도시 : 도시 기능을 분산해 상점, 공원 등의 시설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함
- 세계 96개 도시 시장협의체인 C40의 <친환경적이고 정의로운 회복을 위한 C40 시장 아젠다>, 시티즈토티브(CitiesToBe)의 지속가능한 도시 대안  
: 녹색일자리 창출, 필수노동자 지원, 저렴하고 건강한 주택과 도시 인프라, 다중위험평가 분석을 위한 데이터플랫폼과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탈세계화·자급자족·순환 경제 육성 등

### 4.3 포용적 도시(inclusive city)

-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시의 물리적인 밀도보다 도시 내 불평등(격차)에서 큰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

### 포용적 도시 구현을 위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 Mayors Migration Council :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것이 팬데믹 회복책

## ● 참고문헌(미주)

- 1) Walpen, Bernhard. "Von Igel und Hasen oder: Ein Blick auf den Neoliberalismus." Utopie kreativ 121.122 (2000): 1066-1079.  
Diemer, Arnaud. "Le néolibéralisme français ou comment penser le libéralisme au prisme des institutions." Économie et institutions 20-21 (2014).  
François Denord, Aux origines du néo-libéralisme en France: Louis Rougier et le Colloque Walter Lippmann de 1938, Le Mouvement Social, 195, 9-34.
- 2) Jacobus Delwaide (2011). The Return of the State?. European Review, 19, pp 69-91 doi:10.1017/S1062798710000311
- 3) [imd.org/research-knowledge/articles/COVID-has-decelerated-globalization-but-not-ended-it/](https://www.imd.org/research-knowledge/articles/COVID-has-decelerated-globalization-but-not-ended-it/)
- 4) Carlsson-Szlezak, Philipp, Martin Reeves and Paul Swartz. 2020. What coronavirus could mean for the global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3. <https://hbr.org/2020/03/what-coronavirus-could-mean-for-the-global-economy>.
- 5) J.P. Morgan. 2020. What will the recovery look like from the COVID-19 recession? April 10. <https://www.jpmorgan.com/global/research/2020-covid19-recession-recovery>.
- 6) Ikenberry, John. 2020. The next liberal order: The age of contagion demands more internationalism, not less. Foreign Affairs 99 (4): 133-142.  
Furman, Jernej. 2020. Coronavirus hasn't killed globalisation - It proves why we need it. The Conversation, may 6. <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us-hasnt-killed-globalisation-it-proves-why-we-need-it-135077>. Accessed 7 September 2020.
- 7) Paulson, Henry. 2020. Save globalisation to secure the future. Financial Times, April 17. <https://www.ft.com/content/da1f38dc-7fbc-11ea-b0fb-13524ae1056b>.
- 8)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3/globalization-coronavirus-covid19-epidemic-change-economic-political>
- 9) <https://voxeu.org/article/pandemic-adds-momentum-deglobalisation-trend>
- 10) 홍기빈(2020). "새로운 체제."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11) <https://foreignpolicy.com/2020/04/15/how-the-economy-will-look-after-the-coronavirus-pandemic/>



- 12) Andersson, Johanna, Achim Berg, Saskia Hedrich, and Karl-Hendrik Magnus. 2018. Is apparel manufacturing coming home? Nearshoring, automation, and sustainability – Establishing a demand-focused apparel value chain. McKinsey & Company, October 11.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retail/our-insights/is-apparel-manufacturing-coming-home>. Accessed 7 September 2020.
- 13) McKinsey & Company. 2019. Globalization in transition: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January 16. Retrieved from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innovation-and-growth/globalization-in-transition-the-future-of-trade-and-value-chains>
- 14) Wang, Zhaohui, and Zhiqiang Sun. "From Globalization to Regionalizat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Post-Covid-19 World Economic Order."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020): 1-19.
- 15) Ferguson, Niall, and Moritz Schularick. 2007. "Chimerica" and the global asset market boom. *International Finance* 10 (3): 215-239.
- 16) The State Council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The state council publishes the guideline for China's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Xinhua, May 19. Retrieved from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5/19/c\\_1118898033.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5/19/c_1118898033.htm).
- 17) Saeed, Muhammad. 2017. From the Asia-Pacific to the Indo-Pacific: Expanding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3 (4): 499-512.
- 18)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03-18/coronavirus-could-reshape-global-order?utm\\_campaign=Foreign%20Policy](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03-18/coronavirus-could-reshape-global-order?utm_campaign=Foreign%20Policy)
- 19) Akon, Md Saifullah, and Mahfujur Rahman. "Reshaping the Global Order in the Post COVID-19 Era: A Critical Analysi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Review* 2.01 (2020): 2050006.
- 20) <https://www.lowyinstitute.org/publications/digital-authoritarianism-china-and-covid>
- 21) <https://www.macdonaldlaurier.ca/communist-partys-rule-fear-endangers-chinese-citizens-world-%E5%85%B1%E4%BA%A7%E5%85%9A%E4%BE%9D%E9%9D%A0%E6%81%90%E5%90%93%E4%B8%BA%E4%B8%BB%E7%9A%84%E6%94%BF/>
- 22) <https://thediplomat.com/2020/03/is-covid-19-chinas-chernobyl-moment/>

- 23) <https://www.atlanticcouncil.org/wp-content/uploads/2020/07/What-World-Post-COVID-19.pdf>
- 24) [https://www.globalasia.org/v15no2/cover/g-zero-china-and-the-us-fail-the-world-over-covid-19\\_zhao-suisheng](https://www.globalasia.org/v15no2/cover/g-zero-china-and-the-us-fail-the-world-over-covid-19_zhao-suisheng)
- 25) [https://www.globalasia.org/v15no2/cover/g-zero-china-and-the-us-fail-the-world-over-covid-19\\_zhao-suisheng](https://www.globalasia.org/v15no2/cover/g-zero-china-and-the-us-fail-the-world-over-covid-19_zhao-suisheng)
- 26) Giuseppe Terranova. Geopolitics of Covid-19: global challenge at national borders[J]. AIMS Geosciences, 2020, 6(4): 515-524. doi:10.3934/geosci.2020029
- 27) [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704&PID=data&select\\_tab=](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704&PID=data&select_tab=)
- 28) [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654&PID=data&select\\_tab=](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654&PID=data&select_tab=)
- 29) 재난발생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제88호(2020.03)」에서 일부 발췌함
- 30) 장하준(2020). “경제의 재편” <코로나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31) 장하준(2020). “문명의 전환” <코로나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32)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ckinsey-digital/our-insights/the-covid-19-recovery-will-be-digital-a-plan-for-the-first-90-days#>
- 33)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8/how-digitization-and-innovation-can-make-the-post-covid-world-a-better-place/>
- 34) 제레미 리프킨(2020). “화석연료 없는 문명이 가능한가”.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
- 35) 노무라종합연구소(2020). <코로나대전환>. 알에이치코리아.
- 36) <https://time.com/5876604/machines-jobs-coronavirus/>
- 37) 제이슨 생커, 박성현 역(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미디어숲.
- 38) 장하준. 2020. “경제의 재편” <코로나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39) <https://www.cgdev.org/blog/chart-week-1-elephant-graph-flattening-out>
- 40) <https://www.bbc.com/news/uk-52219070>
- 41)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8/covid19-racial-wealth-gap-black-americans/>
- 42) <https://feature.undp.org/coronavirus-vs-inequality/>
- 43) 케이트 피켓(2020). “우리는 질병과 죽음 앞에 평등한가”.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

- 44)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364747/>  
<https://time.com/5858649/racism-coronavirus/>
- 4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apr/05/nhs-heroes-and-targets-of-racists>
- 46) <https://www.france24.com/en/20200411-if-you-re-black-you-can-t-go-out-africans-in-china-face-racism-in-covid-19-crackdown>
- 47) <https://www.hrw.org/news/2020/05/12/covid-19-fueling-anti-asian-racism-and-xenophobia-worldwide>
- 48) 손철성(2020). “국제적 보건의료와 세계시민주의는 어떻게 결합할까?”, <멀티플 팬데믹>, 이매진.
- 49) 최종렬(2020). “낙인, 혐오, 배제라는 팬데믹은 극복할 수 없을까?”, <멀티플 팬데믹>, 이매진.
- 50) <http://americainagenera.org/newsite/index.php/es/informate/informate-noticias/noticia/4976-solidarity-and-volunteering-keys-to-social-cohesion-and-resilience-in-times-of-covid-19>
- 51)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 52) <http://www.attali.com/en/society/what-will-covid-19-give-birth-to>  
<https://www.institutfrancais-seoul.com/ko/%ec%9e%90%ed%81%ac-%ec%95%84%ed%83%88%eb%a6%ac-%ec%9d%b8%ed%84%b0%eb%b7%b0-%ed%8f%ac%ec%8a%a4%ed%8a%b8-%ec%bd%94%eb%a1%9c%eb%82%98-%ec%8b%9c%eb%8c%80-%ec%9a%b0%eb%a6%ac%eb%8a%94-%eb%ac%b4%ec%97%87/>
- 53) 마사 누스바움(2020).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
- 54) 장하준(2020). “왜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두려워하는가.”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
- 55) 닉 보스트롬(2020). “세계는 다음의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
- 56) <http://quaternary.stratigraphy.org/working-groups/anthropocene>
- 57) Bruno Latour.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58) Barad, Karen(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 59) Barad, Karen (Spring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28 (3): 801-831.
- 60) O'Callaghan-Gordo, Cristina, and Josep M. Antó. "COVID-19: The Disease of the Anthropocene." *Environmental Research* (2020).
- 61) <https://www.hsph.harvard.edu/c-change/subtopics/coronavirus-and-climate-change>
- 6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jul/28/pandemic-era-rainforest-deforestation-exploitation-wildlife-disease>
- 63)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55018581>
- 64) <https://blogs.ei.columbia.edu/2020/06/25/covid-19-impacts-climate-change/>
- 65)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france-latour-intel-idUSKBN22K22G>
- 66) <http://www.bruno-latour.fr/node/852.html>
- 6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n/06/bruno-latour-coronavirus-gaia-hypothesis-climate-crisis>
- 68)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oct/02/covid-19-and-the-climate-crisis-are-part-of-the-same-battle>
- 69) <https://news.un.org/en/story/2020/12/1079602>
- 70)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biodiversity-and-the-economic-response-to-covid-19-ensuring-a-green-and-resilient-recovery-d98b5a09/>
- 71) 최재천(2020). "생태와인간". <코로나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72) <https://www.hsph.harvard.edu/c-change/subtopics/coronavirus-and-climate-change/>
- 73) 김홍중. 2020. "코로나19와 사회이론: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4(3).
- 74) [https://www.sdf.or.kr/2020/speakers/speakers\\_endjsp?lang=kr&visid=10000000870](https://www.sdf.or.kr/2020/speakers/speakers_endjsp?lang=kr&visid=10000000870)
- 75) 반다나 시바(2020).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부터의 세계>. 메디치.
- 76) <https://www.centreforlondon.org/blog/global-city/>
- 77)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8/future-of-cities-covid-19/>

- 78) <https://www.climateforesight.eu/cities-coasts/urban-migrations-and-sustainability-in-a-post-pandemic-world/>
- 79) <https://theconversation.com/outbreaks-like-coronavirus-start-in-and-spread-from-the-edges-of-cities-130666>
- 80) <https://www.healthaffairs.org/doi/10.1377/hblog20200618.523168/full/>
- 81) <https://news.un.org/en/story/2020/10/1076532>
- 82) <https://www.ft.com/content/5b41ffc2-7e5e-11ea-b0fb-13524ae1056b>
- 83)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from-smart-to-sustainable-cities-is-covid19-an-opportunity-66363/>
- 84) <https://www.worldbank.org/en/news/immersive-story/2020/06/18/no-urban-myth-building-inclusive-and-sustainable-cities-in-the-pandemic-recovery>
- 85) <https://www.15minutecity.com/blog/hello>  
<https://www.bloomberg.com/new-economy-forum>
- 86) <https://www.c40.org/other/agenda-for-a-green-and-just-recovery>
- 87)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9/inclusive-cities-post-pandemic/>
- 88) <https://www.un.org/en/coronavirus/covid-19-urban-world>
- 89) <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news-centre/news/2020/covid-19-cities-in-the-frontline-of-response-and-recovery--call.html>
- 90) <https://cityobservatory.org/covid-19-a-catalyst-for-more-inclusive-cities/>
- 91) <https://www.mayorsmigrationcouncil.org/mmc-covid19>

